

대한방직 전주공장 1980억에 팔린다

개발법인 자광, 계약금 10% 납부, 잔금 내년 10월에...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증가 등 투자 가치 높아

개발법인 자광이 전북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라 불리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매입한다. 27일 자광의 관계사인 자광건설에 따르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21만 6463㎡)를 1980억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자광은 이날 계약금 10%를 납부했으며 나머지 잔금은 내년 10월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자광은 2023 새만금 세계캠버리대회와 12개의 공공기관이 동지를 둔 전북혁신도시,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증가 등 투자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이번 매입을 결정했다. 부지를 매입한 자광은 이곳에 타워(호텔)와 주거시설(아파트) 등을 짓는 복합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전북도, 전주시와 협의

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시설녹지 매입과 용도변경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광건설 관계자는 "아직 초기단계라서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아마도 복합 개발쪽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전북도와 전주시와 접촉하지 않았다"며 "향후 전북도, 전주시와 협의하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등과 인접한데다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있다. 또 전주 신도심에 위치해 있어 '글싸라기 땅'이라 불린다. /뉴시스



개발법인 자광이 전북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라 불리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매입한다.

수험생 보온병 '콕시클' 인기 물이

12시간 보온 · 24시간 보냉 가능... 분류병으로 인기 급상승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수험생에게 시험 당일 따뜻한 차나 물을 챙겨줄 수 있는 '보온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메리칸 패션 텀블러 브랜드' '콕시클(Corkicle)' 관계자는 27일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보온병 수요가 늘어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위가 차가우면 상대적으로 뇌에 혈액 공급이 줄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보온병의 따뜻한 물은 시험 시간동안 극도의 스트레스로 긴장하고 있는 위장의 근육을 풀어주며, 위 경련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콕시클 텀블러는 독점 기술인 삼중 단열 기술을 적용한 패션보온병이다. 12시간 보온 및 24시간 이상 보냉이 가능해 트렌디한 육아맘들의 분류병으로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패션텀블러의 경우 9시간 이상 보냉 및 3시간 보온이 가능하다. 감각적인 색상과 다양한 크기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현재까지 800만 개가 넘게 팔린 콕시클은 2011년 미국 플로리다 주



에서 시작돼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 중이며 전세계 31개 국가, 1만 개 이상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콕시클의 패션 보온병 '캔틴'은 다양한 사이즈 (270ml, 470ml, 740ml, 1.7L)가 있으며, 삼중 구조로 보온 12시간, 보냉 24시간 효과를 자랑하고, 선명한 색상부터 은은한 파스텔톤, 언제 어디서나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채색, 유광과 무광까지 다채로운 제품군으로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콕시클은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과 아울렛 매장,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뉴시스

은행 가계대출 금리 올라 3.41%... '시장금리 상승' 영향

시장 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9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도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41%로 전월(3.39%)보다 0.02%p 상승했다. 지난 8월 하락 전환한 이후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집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 8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 취급으로 사상 첫 3%대로 떨어졌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달 연 4.09%로 다시 4%대로 올라섰다. 지난 7~8월 두달 연속 하락했던 집담대출 금리도 전월대비 0.05%p 오른 연 3.14%를 기록했다. 저금리였던 중도금 대출 취급

효과가 다소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24%로 전월보다 0.04%p 떨어졌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4%p 오른 연 3.48%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출은 3.10%로 전월보다 0.01%p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3.69%로 0.05%p 올라 오름 폭이 더 컸다. 지난 7월 이후 두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예금은행의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달 연 1.53%로 전월대비 0.05%p 올랐다. 은행들의 정기예금 유치로 순수저축성 예금금리는 전월보다 0.04%p 오른 연 1.49%를 나타냈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금융상품도 전월보다 0.03%p 상승해 연 1.64%를 기록했다. /뉴시스

국민연금 제도관리 · 기금운용 역사 30년사 발간

국민연금공단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연금 제도관리와 기금운용의 역사를 정리한 '국민연금 30년사'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연금의 업무집행 과정과 경험 및 대국민 서비스 발전과정을 담은 총 6편의 역사서다. 1편은 30년 업무집행 역사를 개관하

고, 2편부터 5편에 걸쳐 기술된 국민연금의 주요 관리업무를 통사로 정리했다. 마지막 6편은 국민연금 관리 역사에 대한 이해와 향후 10~20년 내 인구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공단의 주요 핵심사업의 발전방향 제시했다. /뉴시스

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 미공개정보이용 44% 1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가 4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자율규제 전문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종목적출, 풍문수집, 지분변동신고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및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제를 구축해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에 설치된 기구다.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사유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총 523건 중 미공개정보이용이 230건(44%)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시세조정 180건(34.4%), 부정거래 57건(10.9%), 보고의무위반 등이 56건(10.7%)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5년까지는 시세조정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부터는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 행위가 급증하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뉴시스

IT업계 '방긋' 자동차 '침울'

주요 기업 3분기 실적 업종별 희비 엇갈려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자·IT업계가 고공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업계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분기에 고전했던 철강업계는 다소 개선된 3분기 실적을 내놓고 있다. ◇전자·IT '슈퍼호황'... 삼성전자 등 사상 최대실적 전자업계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자업계 실적 발표는 지난 25일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을 시작으로 26일 LG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어받았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4분기에 영업이익 4조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간 '영업익 10조 클럽' 기원도 사실상 확정됐다. 업계는 전자업계 선전에 정점을 찍을 3일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실적 발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올해 3분기(7~9월)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 14조5000억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또한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장의 '슈퍼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닥 깊어진 자동차...美경쟁강화·통상임금 소송 등 악재 자동차업계는 뜻지못할 3분기 실적을 받아들였다. 중국의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여파로 현대차의 3분기 순이익은 2분기 연속 1조원을 밑돌았고, 기아차는 주요시장 판매부진과 통상임금 총담금으로 10년만의 분기 적자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지난 26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7% 증가한 1조2042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6% 증가한 24조 2013억원, 순이익은 16.1% 감소한 9392억원을 각각 나타냈다. 현대차의 분기 순이익이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후 올해 2분기가 처음이며, 이번이 두 번째다. 3분기에 판매된 완성차는 107만149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줄었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